

모비스, 수소차 전지 활용… 공장에 무공해 전력 공급

‘넥쏘’ 탑재 수소연료전지 적용
충주 공장에 발전시스템 구축
안전성·저소음 등 효율성 높아
국내외 다른 생산거점에 확대

현대모비스가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모듈을 활용해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소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공장 내에 ‘수소비상발전시스템’을 구축해 운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을 전용 공장에서 일관 생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독자 기술력을 자동차 분야가 아닌 발전 시스템에 응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비상발전시스템은 현재 양산 중인 현대차 ‘넥쏘’에 탑재되는 수소연료전지모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 충주 수소연료전지공장 안에 설치된 비상 발전 시스템.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5개를 나란히 병렬로 연결해 최대 450㎾급 발전용 시스템으로 개발했다. 이는 충주공장 전체 전력 소요량의 7% 수준으로 비상 시나 퍼크타임 시 대응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넥쏘의 연료전지모듈을 발전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동시에, 발전기에 필요한 병렬 제어기와 열관리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을 별도로 개발했다. 당장 이 발전기는 공장 정전 시

비상 전원 및 계절별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보조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수소발전시스템은 ▲수량조절 ▲안전성 ▲높은 에너지효율 ▲무공해 ▲저소음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모듈의 수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수소연료전지모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은 모두 방폭 설계가 돼 있고 수소 자동 감지, 외부 배기 시스템 등이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도 염려가 없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무공해, 저소음 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안병기 현대모비스 전동화사업부장은 “충주공장 수소비상발전시스템은 수소차 핵심 기술을 활용해 수소 사회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차량용 수소연료전지모듈은 발전뿐 아니라 수소 열차나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접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충주공장 내 수소발전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에도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충북 충주에 위치한 친환경 차 부품단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 3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은 오는 2022년 약 13배 수준인 연 4만대 규모로 확대된다.

이 착공식에서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와 발전과 선박, 철도 등 분야 20만대를 합쳐 총 70만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아프리카TV와 1인 미디어 생태계 확장

KT가 아프리카TV와 손잡고 1인 미디어 활성화와 e스포츠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KT는 13일 서울 잠실 아프리카TV 오픈스튜디오 ‘KT 10기가 아래나’에서 아프리카TV와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아프리카TV 오픈스튜디오 10기가 인터넷 체험존 구축 ▲1인 미디어(BJ)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공동 프로모션 ▲e스포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정기적인 리그 운영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T 기사사업본부장 김원경 전무(오른쪽)와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가 1인 미디어(BJ) 활성화 및 e스포츠 생태계 확장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기아차,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입채용 방식 변화

10대그룹 최초 정기공채서 상시공채 전환

각 협업부문 직무중심 인재 직접선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정기공채에서 직무중심 상시공채로 전환한다. 경력직 수시채용은 보편화됐지만, 신입사원을 이같이 선발하는 것은 국내 10대그룹 가운데 처음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본사 인사부문이 관리하는 ‘정기 공개채용’에서 각 협업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중심의 ‘상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입사원 일반직뿐 아니라 연구직, 인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대·기아차의 신입사원 채용방식 혁신은 연 2회 고정된 시점에 채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영환경 변화로 상황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상시 공개채용은 각 부문별로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연중 상시로 진행돼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의 경우 한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6개월가량을 기다리거나 졸업을 유예해야했다. 상시 공개채용방식으로 바뀌면 지원자들은 관심 있는 직무 중심으로 필요 역량을 쌓으면서 연중 상시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분야에 대한 필요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시 공개채용 방식에선 각 부문이 채용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차별화된 채용방법과 전형과정으로 선발하게 된다. 채용공고에서는 세부정보와 필요 역량을 현재보다 상세하게 공개된다.

/양성운 기자

국내 최고 화력… 삼성, 인덕션 신제품

2019년형 세프컬렉션 8종 출시

삼성전자가 2019년형 전기레인지 인덕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형 인덕션은 화력을 높이고 온도를 15단계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 요리 맛을 극대화하고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까지 대폭 강화했다.

라인업은 ‘세프컬렉션 인덕션’ 3개 등 8개로 나왔다. 세프컬렉션은 6800W(와트)로 국내 최고 수준 화력을 구현한다. 또 1개 화구를 최대 4개로 분할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콰트로 플렉스 존’도 적용했으며, 코일을 촘촘하게 탑재해 사각지대도 줄였다. 내구성과 안전성도 강화했다. 상판에는 독일 ‘쇼트’가 만든 강화유리 ‘세란글라스’를 적용했다. 테두리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해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도록 했다.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해 제품 상태와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원하는 위치에 용기를 올리면 바로 화력을 올릴 수 있는 ‘자동 용기 감지’ 기능과 함께, 요리를 끝낸 후 잔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잔열



삼성전자는 2019년형 전기레인지 8종을 출시한다.

/삼성전자

표시’ 기능도 탑재했다.

그 밖에 화력 세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LED ‘가상불꽃’과 탈부착 방식으로 청소를 편하게 만든 마그네틱 다이얼 등 기존 기능도 그대로 이었다. 주전원을 직접 연결하면 최대 화력을, 전원 플러그로는 3300W까지 화력을 낸다.

세프컬렉션 올 플렉스 모델은 좌우 화구를 ‘콰트로 플렉스존’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쿠킹존은 8개로 자유롭게 조리할 수 있으며, 최대 7200W까지 열을 낼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최정우, 식량사업 결실…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

〈포스코 회장〉

포스코대우, 오렉심 그룹과 계약
밀 등 250만t 규모 출하 기대

포스코대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식량사업 본격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포스코대우는 올해 식량유통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인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을 인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날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 그룹이 보유한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 75% 인수 계약을 체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했다.

수출터미널은 곡물을 선적하기 전에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다. 수출터미널이 있으면 가격이 낮을 때 곡물을 비축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선적하는 등 리스크



오렉심 그룹 유리 부드 닉 회장(왼쪽)과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이 13일 곡물터미널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리가 가능하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하고 곡물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도 가능해졌다.

고 설명했다. 오렉심 그룹은 수출터미널 뿐 아니라 하역업 2개사, 물류업 2개사를 운영하는 종합물류회사로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씨유 수출 1위 기업이다.

수출터미널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최대 수출항 중 하나인 미콜라이프항에 있으며 올해 7월 준공되면 연간 250만t 규모를 출하할 수 있다. 주로 옥수수, 밀, 대두 등을 취급한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와 밀 수출에서 세계 4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7년 약 7500만t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주요 곡창지대다.

포스코대우는 터미널 인수가 국내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의 옥수수, 밀 자급률은 1% 대로 2017년 옥수수 1000만t, 밀 500만t를 수입했다.

/양성운 기자